

옛 문집에서 느끼는 인생무상 “사람은 가고 사연만 남는다”

허경진 | 목원대 국문과 교수

하바드대 연칭도서관 지하서고에는 우리나라 고서들이 4천여종 쌓여 있다. 마침 연구년을 얻어 이곳에서 1년을 보내게 됐으므로, 나는 요즘 미국 학생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지하서고에서 마음놓고 책구경을 하면서 지낸다. 예전에도 자주 드나들던 지하서고였지만, 이번에는 책구경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서고에 들어가면 전공에 관계없이 책을 구경하는 버릇이 있다. 제목이 재미있으면 무슨 책이든지 일단 꺼내고 펼쳐본다. 충청도 지역 보부상(裸負商)들의 절목(節目)이나 행상청(行商廳) 절목도 재미있고, 옹희 3년(1909) 3월에 간행된 《충청남도상업주식합자회사 취지서》와 《규칙》도 재미있다.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관한 자료다. 공주에 본사를 두고, 1주에 5원씩 6천주를 발행해 자본금 3만원을 모았다. 주주는 공주지역의 장사꾼과 유지들이었다. 언젠가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복사해놓긴 했지만, 내 전공도 아닌 자료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전공 밖의 책들을 하염없이 읽어보는 취미는 여전하다. 그러다가 친구 교수들에게 귀한 자료를 소개해주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펼쳐서 여기저기 끝간데 없이 읽어보던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전이 아니라 서고를 들춰보게 된 것이다.

어제는 《어진도사등록(御眞圖寫騰錄)》이라는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가 다 지나도록 손에서 떼 놓지 못했다. 광무 6년(1902)에 고종황제와 황태자(순종)의 초상화를 그리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 초상화 하나를 그리려면 수많은 화원과 관리들이 동원되며, 황제가 두 달 가까이 화원들을 만나서 모델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요즘 모델처럼 옷도 갈아입고 화원들을 만나, 의선관 차림과 면복 차림의 그림이 따로 완성됐다. 덕수궁의 양관(洋館)인 정관헌(靜觀軒)에 임금을 모셔 놓고 어진(御眞)을 그리는데 어떤 물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림을 다 그린 뒤에는 상금을 얼마나 줬으며 어떤 벼슬을 내렸는지, 그림 하나 그리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 책을 읽기 위해, 나는 여러 권의 미술사 책을 함께 읽어야 했다. 그러나 옛날 책을 읽기가 늘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은 《체역집(替役集)》이라는 문집을 우연히 들춰봤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남(霧南)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20대 청년시절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지었던 한시 120여편을 신호열 선생이 번역한 책이었다. 예전 문집 형태로 제본해서 두 권 분량이었는데, 1961년 4월 5일 동서출판사에서 발행했다. 1960년 4·19 학생의거로 하야한 이박사의 시집이 이듬해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기 한달 전에 간행된 셈이다. 만민공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박사는 신체적인 노역(勞役)을 정신적인 노역으로 바꾸기(替) 위해 감옥 안에서 동지들과 한시를 주고받았는데, 이화장에 소장돼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있던 자필본에 따르면 1900년 봄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1903년 출옥 때 까지 모두 142수를 지었다고 한다.

자유당 정권 말년에 번역하기 시작한 이 시집은 결국 이박사가 하야한 뒤에야 출판됐는데, 독립운동시절 그의 비서를 지냈던 윤치영이 발문을 쓰면서, “선생의 조국애에 대한 일관정신과 함께 과충책효(課忠責孝)의 사상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고 찬양했다. 속표지에는 이박사가 직접 붓으로 쓴 책제목이 실려 있는데, 1961년 3월 1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쓴 글씨였다.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 하와이로 말년에 망명해서 삼일절을 보내는 그의 감회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조국을 외세의 침략 앞에서 구하기 위해 독립협회에 가입해 언론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청년 애국자 이승만의 모습이 엿보이는 시들이었지만, 구십이 다된 노정객이 망명지에서 그 책의 제목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던가.

첫장에는 이박사의 외교고문이었다던 올리버 박사가 이박사의 비서로부터 이 책을 10권 받아서 미국 내 도서관 몇 군데에 배부한다는 편지가 끼어 있었는데, 타자기로 친 그 편지도 이제는 40년이나 지나 누렇게 바랬기에 인생무상을 더욱 느끼게 했다. 올리버 박사 편지에 따르면 4·19혁명 전에 찍었던 책들이 다 없어져서 다시 찍었다니, 자신의 글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애썼던 옛날 문인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났다.

하루는 어느 문중의 족보를 뒤지다가 어음 한장을 발견했다. “이 돈표를 지닌 자에게 몇일까지 칠천냥을 지급하겠다”는 쪽지였는데, 옛날 어음같이 반쪽으로 나뉘지 않고 온전한 것을 봐서 조선후기에 작성된 어음인 듯했다. 나는 족보에 끼워져 있던 이 어음조각을 보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해봤다.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느라고 족보에 끼워 놓았다가 주인이 혹시 잊어버린 것이나 아닌지, 그래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집안이 기울어 족보마저 헌책방에 나오게 된 것이나 아닌지. 이제는 돈 값어치가 없게 된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후손이 이 어음을 보고 그 사연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착잡할 것인가. 어음조각 한장을 놓고 근거 없는 상상을 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인생무상을 실감했다.

옛날 문집들을 들춰다보면 편지들이 흔하게 끼어 있다. 대개는 책주인이 받은 편지인데, 편지를 받아서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끼워 놓은 것들이다. 가장 흔한 것이 안부편지인데, 병세를 위로하는 편지도 많다. 병세가 조금 나아졌다고 기뻐하는 편지도 있는데, 병자나 문안하는 사람이나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닌가. 혼자 책을 읽다가 뜻이 통하지 않아 스승에게 질문하는 편지도 있으며, 문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무언가 변명하는 편지도 있다. 초서로 흘려 써서 읽어보기 힘들었던 편지들 가운데는 별별 사연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는 편지를 보냈던 사람도 없고, 받았던 사람도 없다. 사람은 가고, 사연만 남은 것이다.

이따금 문집 속에서 부고(訃告)와 부의(賻儀) 봉투를 발견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부고를 대문 밖에서 펴보고는 문틈에 끼워 두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책에 끼워 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 흉사를 알리는 부고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부의 봉투는 자주 보게 된다. 책 주인이 상을 당해서 조문객들에게 받아 놓았던 부의인지, 아니면 남의 상가에 보내려고 써 뒀던 부의인지는 확실히 않지만, 부의 단자(單子)를 써서 흰 종이로 싸고 다시 봉투를 정성껏 써서 보냈던 것을 보면, 조상들이 부의 하나에도 얼마나 예의를 차렸는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성들인 부의 봉투를 보면서도 인생무상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옛 책을 보면서 언제나 인생무상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다. 에머슨이나 롱펠로 같은 시인들의 서체에 가득 꽂혀 있는 옛 책들을 보면 백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작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쓰다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편지나 원고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작가가 곧 돌아올 듯한 느낌마저 든다. 율든 호숫가에 있는 소로우의 서재는 한 평밖에 안되고, 그 조그만 책상 위에서 쓴 책들은 그의 생전에 별로 팔리지도 않았지만, 자연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의 책들은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던가. 루이자 메이 울콧의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어로 번역된 수십 권의 《작은 아씨들》이 꽂혀 있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준다.

건축사를 전공하는 김정동 교수는 책을 많이 사 모으기로 이룬난 장서가인데, 지금도 주말이면 일본에 헌책을 사러 가곤 한다. “언제 쓰려고 아직도 책을 사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글쎄! 죽기 전에 이 자료들을 다 써먹어야 할 텐데”라고 대답해서 웃은 적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더니 “미술사를 전공하는 아들놈이 내 서재에 들어와서 필요한 책들을 마구 뽑아간다”면서 자랑스럽게 불평했다. 그쯤 되면 책한권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자료로 쓰는 셈이니, 인생보다 책이 더 오래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